

광주 미술계 혁신 이끌 인사 선임될까

광주시립미술관장 공적경쟁 선언

특정 분야 독점 문제점 지적 '전국구 영입' 연봉 인상 고려

“광주 미술계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13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임 미술관장과 관련,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등 공모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정립·공정·전문성과 함께 국제적 비전을 갖춘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어떤 인물이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과 관련,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장이 ‘공적 경쟁’을 선언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전국구 인사 영입을 위한 연봉 인상과 함께 적절한 응모자가 없을 경우 추천위원회를 통한 영입까지도 언급하면서 ‘새로운 인물’의 응모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변화가 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전 공모 과정에 대해 들어보니 공모를 하면 누가 될지 정해져 있어 들러리 서기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광주시의 취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인물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2일 일 공모 서류 접수, 9월 7일 최종합격자 발표 등 드림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지역 미술계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공모와 관련 13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최고의 미술관 전문 경영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임 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광주시립미술관장 자리를 놓고 자천타천 20여명이 넘는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물 중에 이 시장이 말하는 “광주 미술의 미래 백년을 내다보고 발전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진 인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지역 미술계의 시각이다. 최근 공모를 진행한 대구미술관의 경우 6명이 응모했지만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리고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992년 전국 최초의 국립미술관으로 출발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제 1대, 2대 공무원 출신 관장을 거쳐 1996년 강연균 화백을 시작으로 화가, 그중에서도 지역 출신 서양화가가 관장을 맡아왔다. 최영훈, 오건택, 이태길, 박지탁 황영성, 조진호 작가 등이다.

이 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특정 분야가 관장을 독점해온 상황에 대해 “다 지역이 큐레이터, 전문 미술관 CEO 등 다양하게 임명된 데 반해 계속 서양화가들이 맡아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순혈주의 비슷하게 장악자만 맡아오다보니 카르텔, 분열적 요소 등 문제점도 많았다”고 적시하면서 이번엔 이런 ‘관행’이 깨질지도 관심 사항 중 하나다.

2011년 문을 연 대구미술관의 경우 1~3대 관장이 모두 큐레이터 출신이며 현 부산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학에서 출신으로 대구미술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 제주도립미술관장도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물러난 서울시립미술관장도 학예사 출신이다. 물론 학예사 출신 관장들이 모두 작가 출신들보다 미술관 운영에

적임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시장은 전국구 인물 영입을 위해 연봉 인상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시장 시절 선임된 광주시립미술관 최태지 예술감독의 경우 연봉을 상향조정했으며 당시 연봉을 대폭 올렸었다. 공모에 따르면 현재 지방 서기관 4급 수준의 미술관장 연봉 하한선은 5800만원 수준(수당 제외)이다.

여기에 유능한 인사들의 응모가 적을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적임자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나와 차기 관장에 어떤 인물이 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애꾸눈 광대, 어머니의 노래

22~2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올해로 6년째 무대에 오르고 있는 5월극 ‘애꾸눈 광대-어머니의 노래’(사진)가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5월부터 상설공연과 순회공연을 펼쳐온 ‘애꾸눈 광대-어머니의 노래’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1980년 5월의 광주를 알렸다.

‘애꾸눈 광대’는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알리고자 기획된 연극으로, 당시 현장을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지현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초연을 시작으로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애꾸눈 광대’는 올해 ‘어머니의 노래’를 부제로 새롭게 각색해 굴곡진 현

대를 살아낸 우리네 어머니의 인생사를 이야기한다.

이번 작품은 방송 및 희곡작가로 활동 중인 김원민이 각색하고, 연출은 3년째 이행원(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 한국소극장협회광주지회장)이 맡았다.

출연진은 김갑돌·약장수 역에 이세상(지현), 어머니 역 김안순, 이지현 역 이현기, 이장·신발장수 역 노희설, 영암택역 정경아, 형사 역 최용규, 팔용·각설이·민남 역 한종신, 인숙 역 최효주 등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배우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선착순 100명 입장 무료, 전화(062-670-7942)로 예약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문창환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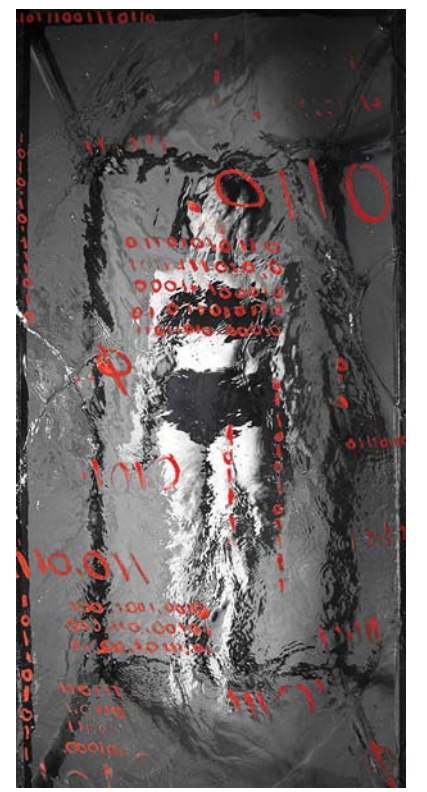
21일까지 영상 등 14점

미디어와 설치,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문창환 작가가 초대전인 21일까지 서구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제6회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문창환 작가가 작업한 영상과 사진 등 14점이 관람객들과 만난다.

문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7년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첫 개인전을 연데 이어 이번이 네번째 개인전이다.

2017~18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담양예술창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등 20여 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83-007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창환 작 'Illusion'

안개와 증강현실이 만나면...

ACC 어린이문화원 '포그 스크린' 무료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ACC)은 여름방학을 맞아 물로 만든 안개 막도 운영한다.

물로 만든 안개 막 '포그 스크린(Fog Screen)'은 4차 산업의 증강현실(AR)을 반영한 체험콘텐츠로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미디어랩과 ACC 창작제작센터의 두 번째 협업 프로젝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18 창작제작센터 융복합콘텐츠 쇼케이스 '영원회귀(Eternal Recurrence)' 전시에서 선보여 감각적이며 신비한 체험이란 평을 받았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높이 3m×넓이 4m의 안개 막(포그 스크린)을 통과하여 ACC 어린이문화원에 입장할 수 있다. 이때 어린이들은 안개에 비친 내 모습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게 되는 동시에 안개 막을 통과해 입장하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ACC 어린이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금호아트홀, 18일 김정아 교수 진행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음악학과·사진) 교수가 진행하는 어린이 가족음악회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첫 번째 무대는 빨강의 '야기코끼리 바바 이야기'가 장식한다. 사냥꾼에게 엄마를 잃은 바바가 도시와 인간의 생활양식을 탐험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꼬기리 왕이 된다는 장 드 브루노프의 동화에 작곡가 빨강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직접 만든 곡이다.

또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피아노 독주로 편곡된 곡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다양한 동물의 이미지를 피아노로 표현하



여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쳐주는 곡으로 어린이를 위한 행사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 김 교수는 피아노연주에 동화이야기를 곁들여 들려주며 진행하고 스크린으로 그림과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김교수는 또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해설과 영상이 있는 연주회 '엄마가 들려주는 클래식이야기'도 개최했다. 전석 1만원, 단체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Advertisement for 'K' (국제보청기) hearing aids. Features logos for South Korea, USA, Germany, Canada, and Denmark. Text: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Includes contact info: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Advertisement for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Title: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Lists benefits like sauna, gym, and pool. Includes a table of membership fees and contact info: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